

청소년들이 읽을만한 책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10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91년 10~11월분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도서는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에서 1종당 300부씩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우리들의 하늘

박양호 지음

74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후 「슬픈 새들의 사회」 등의 창작집과 「서울 홍길동」 「별」 등의 장편을 발표한 바 있는 작가가 1988년부터 「학생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을 묶었다.

새별예술고등학교 1학년 공반 남학생들이 새로 부임한 담임이자 국어교사인 박길동선생님의 엉뚱한 수업방식으로 떠들썩해지고 여학생반에서도 호기심을 갖는다. 독고준, 김한솔, 서봉창, 이명곡 등 공반의 일당들이 골탕을 먹이려고 하지만...

행림출판 / A5신 / 256면 / 3700원

차마 그 고향이 꿈엔들 잊힐리아

이청준 외 지음

고향을 작품의 뿌리로 한 다섯작가의 단편소설 14편을 모아 묶은 주제별 작품모음.

1965년 등단한 후 「당신들의 천국」 「춤추는 사제」 등 수많은 장편과 단편을 발표했던 이청준이 「눈길」 「여름의 抽象」 「선학동 나그네」 등 3편을 비롯해서 「도시적 속성을 지닌 모든 것의 부정」으로 표현하는 전상국의 고향인식이 표출된 「산울림」 「脈」 「술래 눈뜨다」, 이문구의 「관촌수필 6.7」 김원일의 「시골여인숙」 「河童」 「연」, 이문열의 「물랑의 노래」 「岩圃新聞人協會」 「糞胡亂場記」 등을 수록했다.

문이당 / A5신 / 364면 / 4500원

大學

편집부 편역

四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학문으로 유가의 전통을 이룬 「대학」의 경문1장과 전문 10장을 알기쉽게 풀이한 책이다. 공자의 말씀을 제자인 曾子가 기술한 經文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다룬 明明德·新民·止於至善의 3강령과 格物·致知·誠意·正心·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8조목을 해설했으며 전문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해석한 내용을 담았다.

대학의 최고 목표는 중용의 도와 통하는 것

으로 이 책에서 풀이한 내용은 至善에 이르기 위한 자신의 덕행과 사물에 대한 궁구 등을 쌓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자유문고 / A5신 / 114면 / 2000원

製造業은 영원하다

마키노 노보루 지음 / 손세일 옮김

최근 국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제조업 이탈의 문제를 국가 및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살핀 책. 「한나라의 번영은 그 나라의 뛰어난 생산력에 달려 있다」는 인식 아래 최근 점차 쇠퇴해가는 제조업의 이탈현상을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1부는 「제조업이 어떻게 나라의 흥망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미국·일본·EC 각국의 사례를 통해 일깨우며 2부는 「제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주로 기업혁신에 초점을 맞춰 그 유형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계연구소 / A5신 / 196면 / 4500원

그 나라 하늘빛

馬鍾基 지음

5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조용한 凱旋」 「두번째 겨울」 「邊境의 꽃」 등의 시집을 발표하고 76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시인이 86년 시집 「모여서 사는 것이 어디 갈 대들뿐이라」 이후 5년 동안 발표했던 작품을 한데 모았다.

「어려운 구절이나 비틀은 표현, 까다로운 유풀을 요구하는 대목」 없이 밝고 투명한 시세계의 깊이를 보여준 시인의 「난」 「산 안에 또 산이」 「日記, 낚고 살기」 「우리나라의 등대」 등의 시편들이 담겨 있다.

문학과지성사 / B6신 / 120면 / 3000원

에피소드 과학사

A. 섯클리프 외 지음 / 조경철 옮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화학적 현상과 그것이 현대과학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재미있는 일화로 엮은 책.

유리를 발견한 전설과 깨지지 않는 유리의 발견, 진주는 과연 초에 녹는가, 엽섬마을의 소금이 지닌 신비, 동물을 질식사시키는 독, 인조 염금의 발견, 가스등의 탄생, 색맹의 화학자 돌턴, 아세톤 제조법의 발견 등등 과학역사에 숨



겨진 뒷얘기들이 엄격한 자료를 뒷받침으로 엮여 있다.

우신사 / A5신 / 286면 / 3800원

외길보기 두길보기

이윤기 지음

「장미의 이름」 「푸코의 추」 등의 번역으로 낮은 저자가 신문·잡지 등에 짧은 글로 연재한 이야기형식들을 모은 책. 77년 단편 「하얀 헬리콥터」로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그리스·로마신화를 해설한 「뤼토스」의 저자이기도 한 작가는 소설이나 번역, 짧은 글 등에서 우리말과 글의 재미와 감칠맛을 느끼게 했는데 언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이 책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일사일언」 「세상의 소금」 「새로 보는 세상」 같은 큰 제목 아래 연재했던 43편의 글들은 때로는 우화형식을 빌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고백하는 글들이 담겨 있다.

열린책들 / A5신 / 210면 / 3500원

현대시조 28인선

이우걸, 장석주 엮음

한국시의 전통적 시가형식인 시조문학이 점차 퇴조한 듯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역동적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는 기획의도로 묶어진 시조모음.

김경자의 「夏至記」 「뚝뚝」 박시교의 「바람 집 · 1」 「겨울강」 이근배의 「옥봉이씨에게 있어서 밤은 무엇인가」 이우걸의 「겨울3」 「빈 배에 앉아」 조주환의 「벽보」 「고향삼화」, 한보순의 「열기의 추상」 「밤바다에서」 등 현대의

시조시인 28인의 작품 120여편을 실었다.

청하 / B6신 / 232면 / 3500원

재미있는 과학교실

김영환 지음

89년부터 교육방송(EBS)에서 방송되는 「재미있는 과학교실」의 내용을 분야별로 묶어 알기쉽게 풀이한 책.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과학원리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컵에 담긴 물이 볼록렌즈처럼 둥글게 솟아오른 이유나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뜨는 것과 같은 원리로 바늘을 물 위에 띄우는 방법, 비눗방울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험들, 등등 물·불·빛·물질의 세계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탐험해본다.

청솔 / A5신 / 246면 / 3000원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캐서린 패터슨 지음 / 위미숙 옮김

「테라비시어로 가는 다리」로 뉴베리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 여류작가가 청소년들을 소재로 쓴 장편소설.

1차대전중 부상을 당해 래스섬에 머물게 된 남자와 그 섬학교에 부임한 젊은 여교사와의 사랑이 쌍둥이 자매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로부터 이 소설의 갈등은 시작된다. 몇분의 차이로 언니가 된 주인공인 자신이 거의 죽을 뻔하면서 살아남은 동생 캐롤라인에 대한 주위 식구들의 사랑을 질투와 연민의 모순된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자유문화사 / A5신 / 264면 / 3500원